

'우리는 도서관으로 여행간다' 출발

전주시, 전국 유일 도서관 여행 관광상품으로 5개 특화도서관 둘러보며 다양한 체험 진행

'책이 삶이 되는 책의 도시' 전주의 이색 도서관들을 차례로 둘러보는 여행버스가 출발했다.

전주시는 지난 24일 여행해설사와 함께 도서관 여행버스를 타고 하루 동안 전주의 5개 특화도서관을 경험하는 '우리는 도서관으로 여행간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국 유일의 도서관 여행 관광상품인 이 프로그램은 지난 14일 시작한 사전예약에서 7월 예약이 모두 마감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처음 8명가량의 도서관 여행객을 태우고 출발한 버스는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철저히 준수된 가운데 운행됐다.

참가자들은 전주시청 1층에 있는 책기둥도서관에서 출발해 ▲팔복예술공작 이팝나무그림책도서관 ▲학산숲속시집도서관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첫마중길 여행자도서관을 차례로 둘러봤다. 주로 가족 단위로 참가한 이들은 인생사진 남기기, 팝업북 큐레이팅, 만나호수 산책 및 시(詩) 필사체험, 아트북 큐레이팅, 엽서 캘러링 등 다양한 체험을 하며 여행을 즐겼다.

시는 이날 전주시청에서 도서관여행해설사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수준 높은 해설을 주문했으며, 이날

참가자들과 함께 도서관 여행 소감 등 환담을 나누기도 했다.

도서관여행은 올 연말까지 매주 토요일 운영된다.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lib.jonju.go.kr)에서 온라인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주시립도서관 '꽃심'(063-230-183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4월 15일 ▲삶의 중심이 되는 도서관 ▲책을 읽고 쓰고 만드는 시민 ▲모두가 누리는 독서문화 ▲가보고 싶은 책여행도시 ▲전주가 기억하는 풍문 책의 거리 등 5개 중점방향을 골자로 '책이 삶이 되

는 책의 도시 전주' 비전을 선포했다.

이날 도서관 여행버스를 탄 한 참가자는 "평소에 가족들과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편으로 '도서관여행이 뭘까?' 라는 궁금증에서 신청하게 됐다"면서 "특색 있는 도서관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어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 삶의 중심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면서 "더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책의 도시'의 자부심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도서관서 여름방학 체험행사 즐겨요"

전주시 이종·쪽구름·건지도서관, 내달 4~13일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 이종·쪽구름·건지도서관은 다음 달 4일부터 13일까지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름방학 독서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쪽구름·건지도서관에서는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초등학교 4~5학년 학생 12명을 대상으로 여름독서교실이 열린다. '기후야, 내 마음도 모르고 너무해!'를 주제로 ▲24절기 알아보기 ▲기후초생개입 ▲지구를 지키는 나만의 방법 등 기후위기를 심각하고 환경보호에 대해 생각해보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수료자 중 우수한 성적을 거둔 어린이에게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과 전주시장이 수여된다.

이종도서관에서는 다음 달 10일과 11일 이틀간 초등학교 1~3학년 학생 10명과 함께 '그림책 테라피'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그림책을 통해 아이들이 여러 감정을 알아가며 가족과 친구들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감정찾기 활동을 하게 된다.

다.

이와 함께 ▲이종도서관의 '신나는 보드게임'과 '어린이 아틀리에: 와이어 화분행잉 만들기' ▲쪽구름도서관의 '동물 파우치 만들기', '폭신폭신 인형방향제 만들기', '마스크 스트랩 만들기' ▲건지도서관의 '나만의 시계 만들기', '스트링 아트: 하트 만들기', '마스크 걸이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일부 프로그램 재료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의 참가비는 무료이며, 행사별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lib.jonju.go.kr)를 참고해 해당 도서관에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운영할 방침"이라며 "아이들이 다양한 여름방학 체험 행사를 통해 즐거운 방학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 만성지구 90면 규모 공영주차장 확충

연말까지 검찰청 앞·만성테크아파트 인근에 노외주차장 2곳 조성

법조타운 이전과 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주차수요가 급증한 만성지구 9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추가로 들어선다.

전주시는 올 연말까지 총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해 검찰청 앞(만성동 1265-1)과 만성테크아파트 인근(만성동

1364-3)에 총 90면 규모의 노외주차장 2곳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시는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 용역을 마친 뒤 오는 9월 중 착공할 예정이다. 주차장 주변에는 자전거 보관대와 화단, 보안등을 설치하기

로 했다.

향후 시는 만성지구 주차장 조성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임시 사용승낙 절차를 밟아 주차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만성지구 내 주차장 부지 10곳 중 4곳이 공영·임시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나머지 부지 중 일부는 LH와 전복개발공사가 민간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면 주택이 불법 주차로 인한 통행 불편과 주차난이 해소되고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도 줄어든 것"이라며 "시민 편의를 위해 도심 내 주차장을 점차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 복지시설 방역수칙 준수여부 현장점검

전주시는 지난 16~22일 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 경로당, 시니어클럽, 노숙인시설 등 복지시설 557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총 29명으로 꾸려진 점검반은 복지시설을 방문해 ▲방역관리책임자 지정 ▲방문일지 작성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치 현황 ▲거리두기 준수 여부 ▲청소·환기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현행화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

고 예방 행동수칙을 배포했다.

시는 점검 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하루 12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보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되찾기 위해 방역수칙 준수해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주거 취약계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

지붕 처마 물받이 교체·도배 장판 시공·페인트 도색 등 지원

전주시와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이사장 유창희)은 지난 23일 진북동 소재 한부모 가정 단독주택에서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진행했다.

이 단독주택은 오십견으로 손에 통증이 심한 어머니와 자녀 2명이 살면서 자녀의 아르바이트로 번 월 80만 원을 통해 생활하는 차상위 가구의 집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날 노후주택 개·보수지원단과 해피하우스 노숙센터 지원팀, 전주지역 자활센터, 진북동 주민센터,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관계자들은 봉사자로 참여해 ▲지붕 처마 물받이 교체 ▲도배·장판 시공 ▲벽면 페인트 도색 ▲현관 채시·창호·방충망·LED 등기구 교체 ▲싱크대 및 화장실 설비



전주시와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은 지난 23일 진북동 소재 한부모 가정 단독주택에서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진행했다.

▲가재도구 정리 ▲생활폐기물 처리 등을 지원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에도 초촌동 소재 중증장애인 거주 단독주택에서

집 고쳐주기 사업을 추진했다.

김은주 전주시 주거복지과장은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과 자원봉사단체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면서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 발굴을 통해 지원 기구를 지속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더 싸게 대출해줄게"… 보이스피싱 전달책 부부 덜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한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아내 A(33)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남편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올해 초부터 경기와 충남, 전남, 전북 등을 돌며 사기를 당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받은 피해액 1억4000여 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

겠다. 대신 현금을 찾아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는 보이스피싱 조직 전화에 속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A씨 등에게 돈을 건넸다.

이들 부부는 건당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피해액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범행 장소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 이들의 범행을 확인하고 A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